

별이 빛나는 밤 _Starry Night

이정희 개인전

2014. 5. 29(목) - 7. 11(금)

그문화 갤러리

T. 02-3142-1429(마포구 당인동)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노동이라고 칭한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과 다름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볼펜 한 자루와 A4용지 한 장으로 시작되는 작업은 하루 평균 시간은 8시간으로 노동자의 평균 근무시간과 비슷하다.

작가는 매일 같은 재료로 비슷한 작업(노동)을 하지만 결과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는 미리 예상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볼펜마다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다른 모습의 무늬가 그려진다. 날씨에 따라 습도에 따라 잉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완성과 미완성이라는 단어는 이정희 작가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없다.

볼펜의 수명이 다 한다면 그것으로 작품은 완성이고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이정희 작가의 작품은 마치 한(볼펜의,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삶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달려간다.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여 실행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알 수 없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다.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 같다. 볼펜 끝만 보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반복된 행위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작가의 말엔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 담겨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작가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고 한다. 그 속에서도 빛나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빛은 우연의 완성을 의미할까, 예상치 못한 만남을 의미할까. 여러 질문에 작가는 그저 해석은 관람자의 몫이라며 말을 아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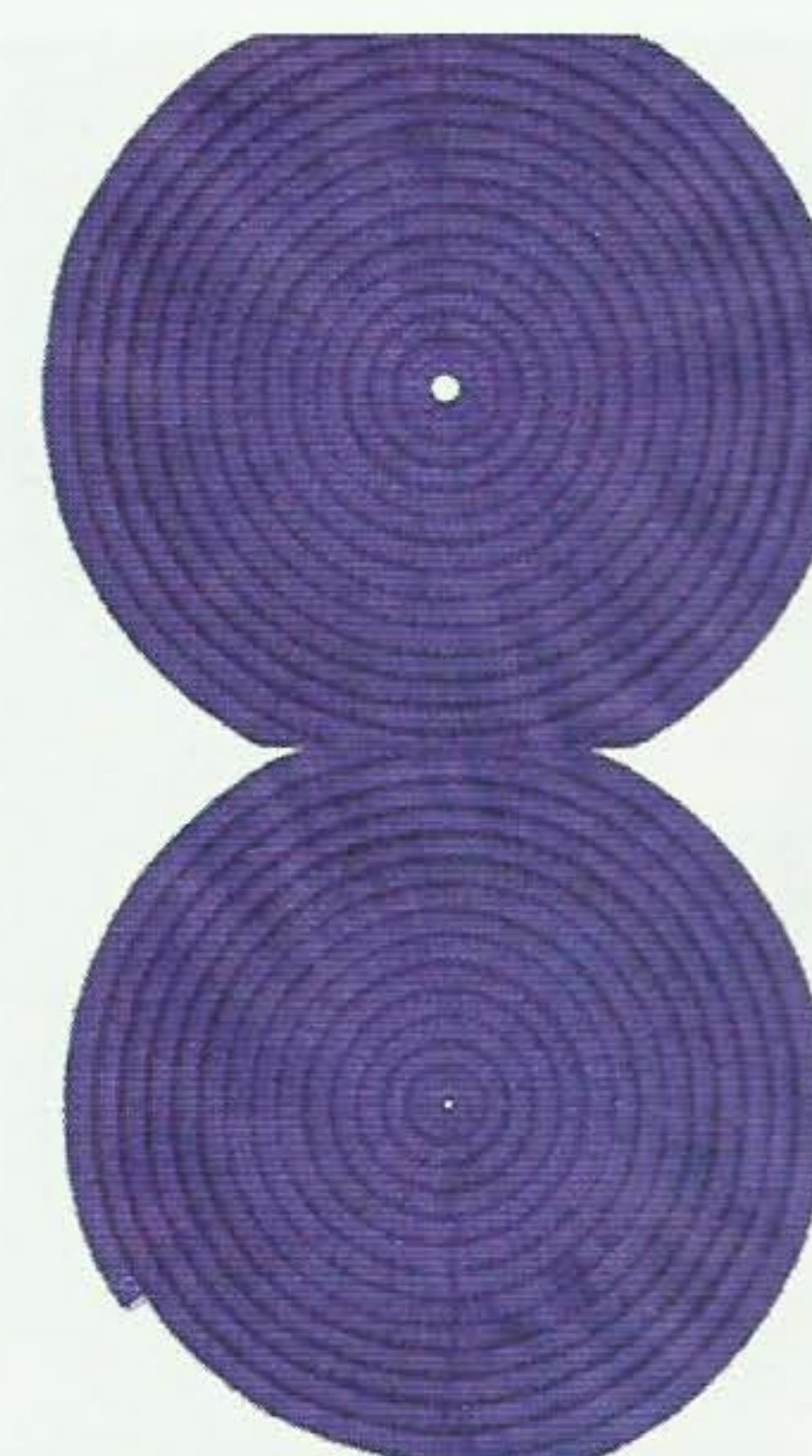
과연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무늬를 남기게 될까. 이정희 작가는 볼펜의 수명이 다했을 때 자신 앞에 선물처럼 놓여 있는 여제와는 조금 다른 무늬를 바라보면 아름답다고 한다.

▲ 반쪽 half _ 297×210mm _ A4사이즈 종이, 볼펜 _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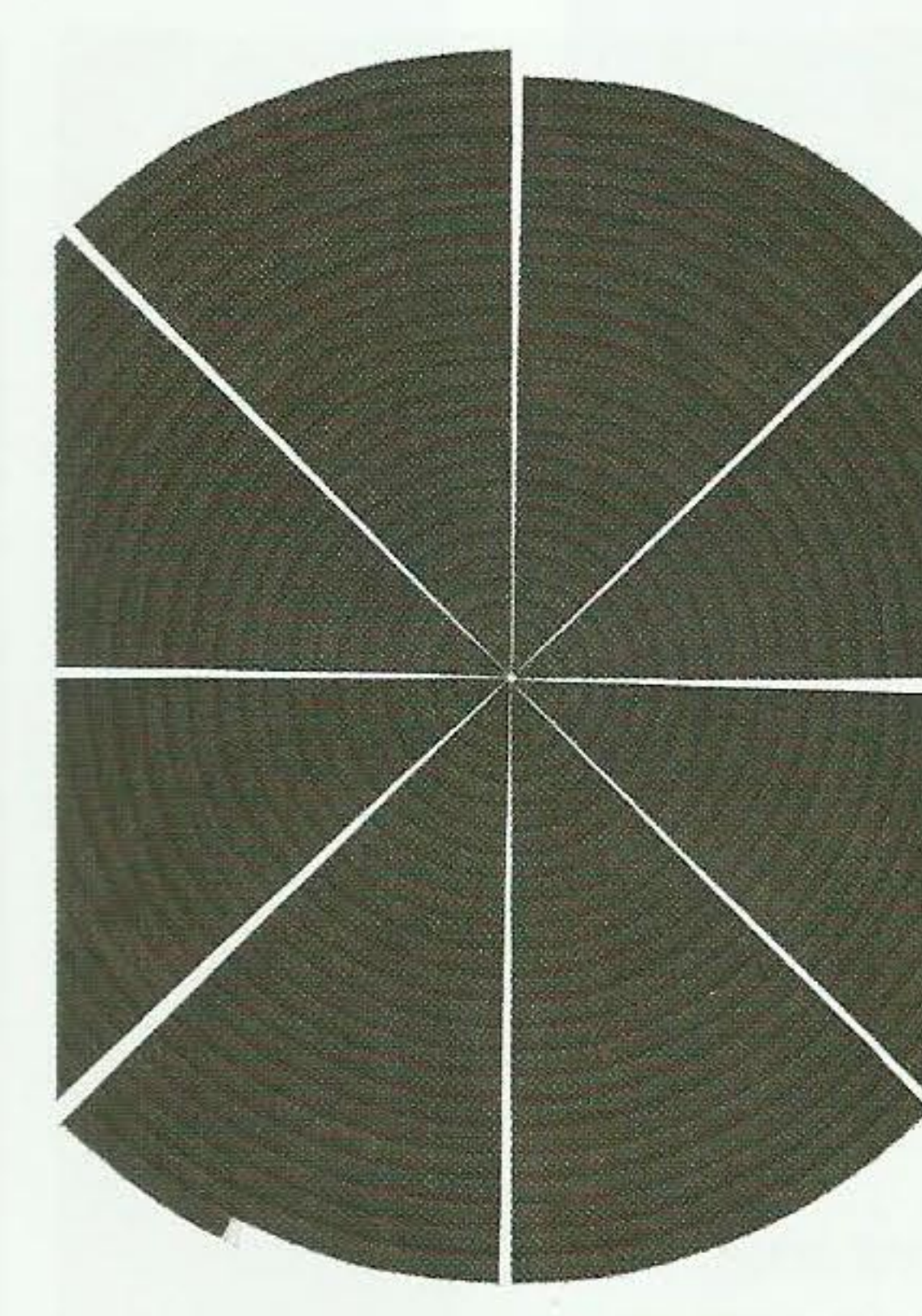
취재부

밤이다. 그리고 나는 밤의 어둠 속을 걷고 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다.
그 별빛은 힘들고 지친 친구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처럼 다정하다.
- 이정희 작가 노트 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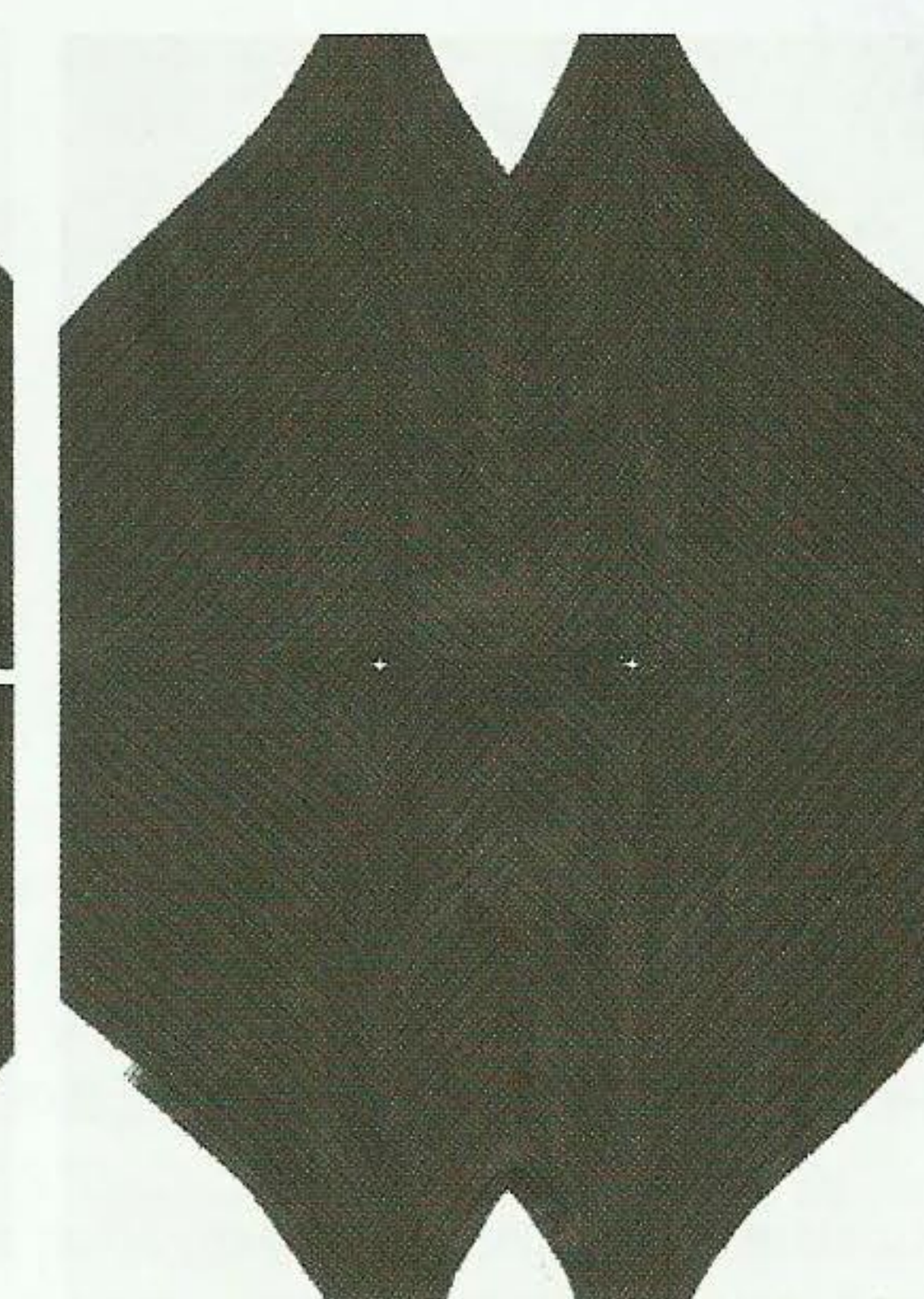
▲ 모서리 corner _ 297×210mm _ A4사이즈 종이, 볼펜 _ 2014



▲ 둘 two _ 297×210mm
_ A4사이즈 종이, 볼펜 _ 2013



▲ 제화전하는 빛 turning light _ 297×210mm
_ A4사이즈 종이, 볼펜 _ 2013



▲ 시선 my gaze _ 297×210mm
_ A4사이즈 종이, 볼펜 _ 2013